

# 送 年 辭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이 저물어 가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임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회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  
사드림이 예의인줄 아나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송년 인사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회장직을 수임한지 벌써 1년이 되가는 지금, 학술  
분야의 지원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유관기관과 업체,  
회원 여러분의 노고로 학회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자부합니  
다.

그 일례로 학술진흥및 연구진작을 위해 년6회의 학회지  
발간이 12회로 증간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산하전문대학교육분과에서도 년 2회 논문지를 발간하  
게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 문화의 달 기념 행사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부산 간 학술영상회의를 개최했는  
가 하면, 정보통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동통신기술세미나 등을 국내외 전문가들  
을 모시고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학회 교환 연구회에서는 ATM 교환기술 워크샵을 개최하여 분과 연구회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산·학협동에도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 5월에 본 학회의 오랜 숙원인 독립 사무실을 독자적  
으로 마련하였으며, 11월에는 대전·충남 지부가 창립되 전국에 모든 지부가 설립되는 경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에 비해 900 여 명이나 회원이 증가해 현재 4,000 여명으로 양적인 증가를 이뤄  
국내 굴지의 학회로 자릴 잡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  
럼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역대 회장을 중심으로한 각 임원진들과 회원 여러분  
노력의 결과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발전해가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  
여 2000년대의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해가는 것 뿐만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임무 또한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무를 본 학회가 떠맡아 학술발전에 전  
력을 기울인다면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학회가 계속 발전할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韓國通信學會 會長  
梁 承 澤

